

테마특서

탁났한 스님의 책들



조국 베트남에서 추방당한 후 평화 운동가이자 난민공동체의 지도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탁났한 스님의 책이 최근 몇 년 새 10여종이나 나왔다.

그렇다면 과연 국적과 종교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스님은 우선 우리들에게 잠시 걸음을 멈출 것을 권한다. 그리고 그 권고는 뿌리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우리들의 가쁜 숨결을 가라앉히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세상을 꿈꾸게 한다.

국내에 번역된 탁났한 스님의 책은 약 10여종이다. 처음 소개된 책으로는 10년 전 나온 <평화로움> (장격각)과 <그대 웃음 꽃 한 송이 피우리라> (한길사)를 꼽을 수 있다. 이후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학민사), <귀향> (모색),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 (나무심는 사람), <첫 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 (나무심는 사람) 등이 차례로 나왔다.

최근 나온 <화 Anger> (명진출판)의 경우 각 서점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는 87년에 나온 책으로, 오래 전

테러 세상 향한 평화 메시지

'이순간의 경이로움을 즐기라'

절판됐다가 명상서적 전문출판사인 '나무심는 사람'이 다시 내놓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법을 알기 쉽게 풀어 '마음모음'이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와 불교의 화해를 다루고 있는 <귀향>에서는 질시가 아닌 이해, 배타적 시선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태도가 '재앙적 테러의 시대'에 필요한 덕목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는 탁났한 스님의 첫사랑 고백서이며 대승경전에 대한 강의집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화 Anger>는 화내기 쉬운 세상에 어떻게 화를 다스려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상에서 비롯되는 화(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일이고,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수행임을 깨우쳐 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탁났한 지음, 류시화 옮김, 김영사)도 이런 '탁났한 열풍'을 타고 나온 책이다. 류시화 씨가 스님의 저술 20여권과 편지 등에서 고른 글을 11개의 주제로 담았다.

스님은 우리에게 말한다. '지금 이 순간의 경이로움을 즐기라'고.

분등선

왕즈위에 지음 김진우·최재수 옮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燈)에 비유한다.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불법(佛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것을 전등(傳燈)이라고 부른다.

달마로부터 시작한 선종은 육조 혜능을 통해 꽃을 피우고 다시 다섯 분파로 나누어졌다. 분등선(分燈禪)이란 당, 오대 시대 선종의 발전과 정에서 형성된 다섯 종파, 즉 위앙

다섯 종파宗風·주요선사 법맥 소개

종,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과 법안종을 말한다. 이 분등의 시기가 중국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종파의 종지(宗旨)는 모두 혜능남종을 계승한다. 한 나무의 다섯 가지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다섯은 어떻게 갈고 다른가. 줄기에 해당하는 보편적 특징은 무엇이고, 다섯 종파 나름의 가풍(家風)과 방편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친절하면서도 상세한 답을 해주는 책이 바로 <분등선>이다.

운주사가 펴내는 선화총서 시리즈 여섯 번째 권인 <분등선> (왕즈위에 지음, 김진우·최재수 옮김)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분등선'의 개념과 그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오가(五家)의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그들이 가지는 역동성을 다루는 한편 이들 종파의 역사와 종풍(宗風), 주요 선사들의 사상과 법맥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한 송대에 나타난 문자선(文字禪)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목조선 및 간화선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가(五家)의 종풍을 살펴보면 우선 위앙종은 소박한 가운데 목

저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때문에 '임제장군(臨濟將軍) 조동사민(曹洞士民)'이라는 비유가 생긴 것이다. 북송시기에 가장 영향력을 떨친 운문종은 종풍이 위협하고 힘

준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고, 그 학인들은 언의(言意)를 초탈해

종의 특징을 '임제는 통쾌하며 위앙은 근엄하고 조동은 세밀하며 법안은 상세하여 분명하고 운문은 고상하여 옛 풍취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졌지만, 선의 본질은 하나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 증봉명봉 선사(증봉명봉)의 '달마가 홀로 도를 바로 가리켜 전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섯의 종파로 나누어졌는가? 이른바 다섯 종파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다섯이지 그 도가 다섯은 아닌 것이다'라는 말 또한 그런 맥락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서술되어 있고, 각 종파에 대한 설명을 읽다보면 선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도 더해진다. 2만원.

분등선의 개념·전개과정 정리

쉽게 서술, 禪에 대한 이해 도와

계(默契)를 깊이 함유하고, 말이 없이 드러내지 않으며 체용(體用)을 모두 밝힌다. 중국 불교사에 큰 영향을 미친 임제종은 선을 가르치고 학인을 제점할 때 입처(入處)가 통쾌하며 깨달은 후의 참선이 자연스러운 종풍을 가지고 있다. 반면 조동종은 가풍이 세밀하고 반복하여 살펴주는 종풍을 가

경건(情見)을 남기지 않는다. 법안종은 종풍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안종풍은 간명한 곳은 운문종과 유사하고 은밀한 곳은 조동종과 유사하다고 본다.

천려유척 선사는 이러한 각 종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승만경·여래장경·부증불감경

'승만경', '여래장경', '부증불감경'은 여래장 사상을 설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전인 '여래장 삼부경(如來藏三部經)'이다. 여래장이란 '여래를 간직하고 있는 창고', '여래의 모태'라는 뜻으로 여래장 사상은 중생 속에 본래 여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승만경·여래장경·부증불감경> (시공사)은 삼부경을 우리

여래장 사상 설한 대표경전

말로 해설하고 그 뜻을 설명한 책으로, 각 장의 끝에 경의 내용과 구절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붙인 것이다. '승만경'은 승만부인이 정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하자 부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칭찬하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래장경'은 중생이 번뇌 속에 있지만 더럽혀지지 않는 여래장이 실재함을 설하고 있고 '부증불감경'은 중생계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가에 대한 견해들이 논파되어 있다. 값 1만4천원.

연꽃속의 부처님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담은 시집 '문화재, 아아 우리 문화재' 등을 펴낸 원로시인 박희진 씨가 1993년 펴낸 <연꽃속의 부처님>에서 '롬비니 찬가'와 '백팔달마찬'을 추가한 <연꽃속의 부처님> (시와 진실)을 펴냈다.

'관세음상에게'와 '산중문답'을 비롯한 145편의 시가 담긴 이번 시집에는 시작연표와 연보를 담아 시인의 깨달음을 향한

'산중문답' 등 시 145편 담아

계락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느꼈던 절망감을 딛고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해준 것이 불교"라는 시인은 "앞으로 석가모니불의 생애와 사상, 그 일대기를 장편 서사시로 엮어볼 예정"이라고 말한다. 1955년 조지훈의 추천으로 등단한 시인은 고회가 넘은 나이에도 '우이동 시낭송회'와 '인사동 아트사이드 시낭송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값 1만2천원.

신묘장구 대다라니 강해 임근동 지음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번역됐다.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임근동 지음, 솔바람은 그동안 몇 차례 시도 있었으나 번역되지 않았던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번역하고 강의 형식으로 그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천수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산스크리트어로 이루어진 기도문이다. 범어 원문과 분석 그리고 한문 경전과의 비교연구를 담았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서 10

책방 역시이온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탁났한	명진출판사
2	마음은 없다	제임스 게인	탐구사
3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동	은행나무
4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시화	김영사
5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재성	한울
6	법성계 강의	석우관	관음손
7	만행	현각	열림원
8	영가천도	우통	효림
9	참선교육1	현담	도서출판선
10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근동	솔바람

도서 안내: (02)737-0695

- 마음고치 벗고 풀어 나비되고 비단짜기 -

참나 은전 개침

www.hanahan.org

붓다의 깨달음

툼 로웬스타인 지음

서장원 옮김



불교의 인도 태동기에서부터 서구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까지 불교의 발전을 복원한 <붓다의 깨달음> (장해) 중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티베트 등지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불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김미숙 씨가 쓴 '한국의 불교'를 책 뒷부분에 추가했다. '한국의 불교'에는 삼국의 불교 유입과

불교철학 형성·전파과정 소개

보편이 나왔다.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 철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깊이 있게 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가 발생지인 인도에서부터

발전과정, 일본과의 교류, 오교 양종과 고려불교, 조선의 배불 정책을 비롯해 원웅회통의 한국불교 등이 담겨 있다. 값 1만5천원.

법안명상기공지상장좌

변형국판, 72쪽, 값: 8,300원
기공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수련안내서.

만국역리학

신국판, 112쪽, 값: 6,300원
역의 원리를 통달해 9종 역리를 청안하고 만국인의 운세를 그 나라의 말과 글로 푸는 9종 운세 풀이서.

이름은세ული

신국판, 160쪽, 값: 7,200원
이 책을 보고 자신의 이름과 상호의 운세를 풀어보세요.
* 대한민국 월드컵 본선 1차전 승리 예상 적중 69%

색즉시공즉시색

신국판, 112쪽, 값: 5,400원
시와 경과 사건의 조화, 자연과 인간 그리고 깨달음의 조화.

종횡무진

신국판, 192쪽, 값: 6,800원
청초적 지혜로 현실을 바로보고 진실을 일깨워주는 21세기 지성인의 교양서

1 만국역리학 보석 지음

3 8

▲ 돌림정화사

21세기를 맞아 세계인이 함께 보는 이름은세ული

2002 KOREA 16

▲ 돌림정화사

색즉시공 즉시색

▲ 돌림정화사